

# 성경에 나타난 비언어적 의사소통 양식

서장국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교수)

## 1. 서론

일반적으로 인간의 의사소통은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온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언어 자체는 물론이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말이 아닌 비언어적 의사소통 (non-verbal communication) 양식도 알아야 한다. 성경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해석학'(hermeneutics)이란 원래 '번역하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해석의 법칙을 연구하여 체계화하는 학문의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는 해석의 법칙을 체계화 내지 조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접근방법이다. 올바른 성경해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방법과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전통적으로 성경해석에서 강조된 언어학의 하위분야는 의미론이다. 그 중에서도 단어의 의미, 즉 어휘의미론 (Lexical Semantics)에 주 관심이 모아졌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단어를 매개로 하여 씌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을 추구한다면 거기에 부수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제 양상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정확하고 온전하게 성경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양식을 살펴보고 이들이 언어학적으로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성경에서 실례를 찾아 검토함으로써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돕고자 한다.

우리 인간이 의사소통을 할 때 오로지 (음성)언어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표정이나 몸짓 같은 신체언어로 음성언어를 보완한다. 심지어 의복, 피부색 등 외적인 모습과 장신구, 화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비언어적 양식들이 의사소통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듯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란 말이 아닌 여타 다른 방식, 즉 몸동작 (body motion)인 손짓, 얼굴표정, 눈의 움직임이나 눈썹 치켜 올리기, 어깨를 으쓱하기, 입오무리기 (pursed lips), 몸자세의 변화 등 키네식스 (kinesics)영역을 포함하여 음질 (voice qualities)의 변화나 웃음, 미소, 하품, 투덜거리기 등 말 소리가 아닌 준언어 (paralanguage), 그리고 피부 접촉, 피부색깔 및 민감도, 심지어는 의복 및 화장 등에 이르기까지 비언어적인 인간의 모든 의사전달 방식을 포괄하여 지칭할 때 사용 된다. 신체언어와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양식은 음성언어와 같은 언어적 의사소통 양식에 견주어 볼 때 덜 정교하지만 한층 통(通)-문화적이고 표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을 가장 솔직히

드러내는 것은 어휘가 아니라 몸이다. 어떤 점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양식’ 이 ‘언어적 의사소통양식’ 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비언어적 의사소통 양식은 무의식적인 것으로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표출시키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양식을 동작학 (kinesics), 준언어 (paralanguage), 근접학 (proxemics), 시간학 (chronemics) 등으로 구분하여 성경에 나타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제 양식을 사례별로 검토한 후 이들이 성경해석상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 2항에서는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양식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양식을 양분하여 개괄하고 이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양식의 면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제 3항에서는 성경본문을 중심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 양식의 사례를 각 비언어적 의사소통 양식에 따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제 4항 결론부분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양식이 함께 고려될 때 한층 성경의 이해를 돕고 보다 정확한 성경 해석이 가능함을 재확인할 것이다.

## 2. 언어적 의사소통양식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양식

### 2.1 언어적 의사소통양식

인간의 의사소통방법은 크게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두 가지 방법으로 양분할 수 있다. 의사소통하면 우리는 통상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을 떠올린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적 기호로 구성된 언어적 낱말이나 문자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행함을 지칭한다. 통상 우리는 언어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의 구성요소를 음운조직, 어휘, 문법, 구문 등의 하부 구조로 나누어 의미를 전달한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사실적인 지식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감정이나 의미의 미묘한 차이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방법은 전체인간의 의사소통 중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sup>1)</sup> 가령, 언어적 낱말은 외연적 및 내포적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으므로 문화적 집단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렵게 된다. 낱말의 외연적 의미는 낱말의 실제적 또는 구체적 의미이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상황적 특성에 따라 언어는 해석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

1) 의사소통에서 음성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Birdwhistell (1974)에 따르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65% 이상이 비언어적 양식 (nonverbal cues)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층 더 나아가 심리학자 Mehrabian (1971)은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전체적인 메시지의 전달은 어휘 7%, 목소리 톤 38%, 그리고 신체언어 55%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고유한 의미의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7%밖에 안 된다. 진정한 의미의 내용을 전달해주는 나머지 93%는 비언어적 요소, 즉 목소리 높낮이, 얼굴표정, 근육의 움직임, 몸짓 및 기타 요소들이 차지하며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들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 2.2 비언어적 의사소통 양식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크게 몸동작 (kinesics), 준언어 (paralanguage), 근접학 (proxemics) 및 시간학 (chronemics)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동작학은 제스처, 눈맞춤, 표정, 자세, 박수 등을 말하고 준언어는 말이 아닌 소리인 음성의 변화에서 나오는 템포, 음역, 음량이나 웃음, 하품, 투덜거리기, 울음, 신음, 한숨, 비명 등과 같은 내용을 지칭한다. 이러한 준언어적 고려 없이는 노여움이나 놀람, 유머, 슬픔, 의혹, 웃음과 같은 인간의 감정 표현이나 그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근접학은 대화할 때 유지하는 상대방과의 거리 및 신체접촉 등의 측면을 일컫는다. Edward Hall 에 따르면 동물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자신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려하며 대화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sup>2)</sup> 이와 같이 의사소통할 때 공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분야가 근접학이다. 시간학은 시간, 속도, 정확성 등 시간의 개념이 나타내는 의사소통상의 기능 및 의도를 나타낸다. 그 밖에도 피부색깔 및 민감도, 의복, 화장에 이르기까지 말로써가 아닌 인간의 모든 의사전달 방식을 지칭할 때 우리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 3. 비언어적 의사소통 양식의 사례분석: 성경본문을 중심으로

### 3.1 동작학 (kinesics): 신체언어 (body language)

#### 3.1.1 몸짓 (gesture)

우리가 발하는 말과 소리, 즉 언어적 행위는 비언어적 행위인 몸짓 (gesture)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러한 비언어적 행위는 문화권 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왕크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모두 한결 같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장난기 있고 경박한 의미는 찾아볼 수 없다 (잠언 6:13; 10:10). 또한 여러 가지 손동작들도 각기 의미를 지니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행 21:40, 22:23, 26:1, 25:18, 13:3, 갈 2:9, 행 13:51).

#### 3.1.2 신체언어의 각기 다른 해석

신체언어 해석의 차이를 보여주는 실례를 우리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

2) Hall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사용하는 거리를 친밀 간격 (intimate distance), 개인 간격 (personal distance), 사회적 간격 (social distance), 공공적 간격 (public distance)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같은 책을 참고할 것.

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 26: 6-13; 막 14:3-9; 요 12: 1-8). 이를 위해 막 14: 3-9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위에 쏟아 붓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sup>3)</sup> 이 여인의 행동은 넓게 기호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호가 묘사만 되어있지 이 기호의 의미작용에 대해서는 기술이 없다. 이 여인의 신체언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즉 어떤 이들의 해석방식과 예수님의 해석방식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어떤 이들은 여인의 행동을 상실 내지는 손실로 보고 있으며 여자의 깊은 심층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향유가 일종의 중요한 언어임을 인식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이 여인의 제스처와 침묵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교감되고 있는 상호작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가난한자에 대한 이론적이고 허구적인 상상력, 여인의 행동에 대한 분노, 그들만의 관점에서 바라본 편견과 고집을 잘 표출하고 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신체언어에서 기호를 읽는다. 이 향유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듯이 일종의 정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예수의 몸을 위한 경의와 애정을 드러내는 일종의 '기호(sign)'인 것이다 (서인석 1984: 244-245). 말이 아닌 여인의 행동에서 예수님 자신의 인격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며 이는 향유를 받은 예수님의 몸이 장차 십자가에 달리시고 매장될 자기 육체임을 알고 계신다. 여인의 제스처, 즉 기호가 예수님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는 느끼고 있는 것이다. 향유를 통해 말씀의 도래를 인지한 것이다.

이처럼 신체언어는 보편적인 몸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각 그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으며 이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요소인 신체언어가 표출하는 의미상의 차이는 오히려 성경해석에 도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이들과 예수의 상반된 여인의 신체언어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한층 강렬하게 복음서에서 말하고자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극명하게 전달시켜준다. 상실된 값비싼 향유와 상실된 예수의 몸 사이에는 일종의 유사성이 있으며 이러한 유사성은 여인의 신체언어를 통해 기호들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비언어적 의사소통양식인 신체언어에 대한 지식과 진지한 고려 없이는 충분한 성경해석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3.2 준언어 (paralanguage)

준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사례는 예수님이 분노하여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에서 (마 21: 12-17; 막 11: 15-19; 눅 19: 45-48; 요 2: 13-22).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3)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여인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 (마 26: 6-13; 막 14:3-9; 눅 7: 36-50; 요 12: 1-8).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기록은 동일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눅 7: 36-50은 다른 사건인 것으로 추정된다 (홀리원 주석성경, 2008: 167). 한편, 마태, 마가복음에는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최후의 말씀을 남기실 때 절규하는 장면에서 (마 27: 45-61; 막 15: 33-41; 눅 23: 44-56; 요 19: 28-30, 38-42)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음성의 변화나 절규, 탄식, 신음은 언어적인 메시지를 한층 강렬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의 고려함이 없이는 메시지의 내용을 충분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 3.3 근접학 (proxemics)

#### 3.3.1 거리 (눅 18: 9-14, 성전에서의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눅 18: 9-14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 자신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여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전 안에서 느끼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각기 다른 거리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당당하게 성전 앞 쪽에 근접하여 홀로 서서 기도하는 반면에, 세리는 성전 앞 쪽에 근접하지 못하고 뒤쪽에 멀리 떨어져 서서 (stood at a distance)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멀리 서서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은 그의 입을 통해 고백하는 말과 함께 그의 신앙의 내적 상태를 비언어적 공간 요소인 ‘거리’를 통하여 보다 확연하게 드러내 준다.

#### 3.3.2 신체접촉

유다의 입맞춤 (마26:49; 막 14:45; 눅 22:47-) 제자들이 랍비에게 인사할 때 관습적으로 하던 존경의 표시이다. 그러나 유다는 이 신호를 관계자들에게 자기가 팔려고 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본래의 의미인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배신의 신호로 쓰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층 아이러니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구약성경 레 11: 31, 21: 1, 민 19: 11, 민 19: 14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레 21: 2-3에 보면 제사장은 가까운 친척이 죽었을 경우에만 시체에 접근 할 수 있었고, 대 제사장의 경우에는 이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레 21: 11-12).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의 집에 들어가시고 더욱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은 행위는 실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으며 관습을 뛰어넘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접촉행위는 의식적인 고려들을 초월하여 부정이 아니라 정결케하는 효과를 낳았으며 궁극적으로 생명을 가져왔다.

예수께서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실때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치유하여

주시는 장면이 나온다 (마 8:1-4; 막 1:40-45; 눅 5:12-16). 이러한 접촉의 행위는 모세의 법에 따르면 부정함을 가져오는 행위이다 (레 13장, 특히 45-46절; 5: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의식에서 금하는 것을 무릅쓰고 접촉을 함으로써 치료를 하여 주셨다.

한편 마 9: 18-22에 보면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의 경우 예수 의 뒤로 와서 그 겹옷만 만져도 낫겠다고 생각되어 그 겹옷 가를 만지니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듯 비언어적 의사소통 양식중의 하나인 예수님의 접촉행위는 병의 치유와 회복은 물론 나아가 생명을 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 식사장면도 이 맥락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3.4 시간학 (chronemics)

#### 3.4.1 성경의 날(day)과 유대인들의 시간개념<sup>4)</sup>

성경에 나타난 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창세기에 나타난 하루 내지는 날(day)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성경 창세기의 날들(days)을 문자 그대로 하루하루의 날들(days)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적, 은유적으로 표현된 시대(epoch)로 이해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Charles V. Taylor (1981)의 논의는 매우 흥미롭다. Taylor에 따르면, 이에 대한 해답의 단서는 창세기가 시로 쓰인 글인가, 아니면 서술문인가를 살펴볼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시로 쓰인 글이라면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할 것이고 서술문이라면 사실에 근거한 역사적 내용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히브리어로 쓰인 창세기 1장 1절은 전형적인 동사+주어+목적어(VSO) 구조를 보인다.<sup>5)</sup> 그러므로 이 문장은 시가 아니라 서술문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하실 때 이 문장 패턴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는 서술문으로 된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세기 문장들은 시적으로 상상과 허구를 동원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히브리어 'Yom'(day, 날)의 뜻을, 일반적인 의미의 뜻을 전달하는 'day, 날' 이라는 말로 이해하고 취급해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해준다. 한편 창세기 2장과 민수기 7장에서 단어 Yom(day)을 상징이나 비유가 아닌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음을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6)</sup>

4) 창세기의 날들에 대한 논의는 서장국 (2009)와 Charles V. Taylor (1981)에서 발췌한 것임. 보다 자세한 논의는 앞서 언급한 것 외에 헨리 모리스 (1994) (서철원 역), John Calvin (1948) 및 <http://www.answersingenesis.org/docs/3569.asp>를 참조할 것.

5) 일반적으로 서술문의 어순은 영어가 SVO 구조이고, 한국어와 일본어가 SOV 구조라고 한다면 히브리어는 VSO 구조를 이룬다 (cf. Taylor, 1981).

6) (1) '... in *the day* that the LORD God made the earth and heavens, and every plant of the field before it was in the earth ...' (KJV: 창세기 2:4-5)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

(2) 'And the princes offered for dedicating of the altar in *the day* that it was anointed, even the

이밖에도 유태인의 날 (창세기 참조)의 개념, 우물가의 사마리아여인, 성경에 나오는 새벽의 의미, 악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 품꾼과 품삯의 비유 (마 20:1-16)도 이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흥미롭다. 시간과 관련하여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바로 ‘포도원 품꾼과 품삯’의 비유이다. 포도원 주인은 일을 한 시간에 관계없이 품꾼 모두에게 똑 같은 양의 품삯을 지불했다. 노동자들과 고용인의 경제논리에 따른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경의 시간개념은 이처럼 세상의 시간개념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것이 성경에 비쳐진 시간관이다.

### 3.5 의복 (clothing) 및 기타 장신구

우리가 입는 옷과 기타 장신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의복과 관련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보기가 에스더서 5:1-3에 나타나있다.

“제삼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When Queen Esther determines to seek an audience with the king we are told that she 'put on her royal robes', signalling both her own status and the formal nature of the occasion") (에스더 5: 1)

구약성경 에스더 5:1-3에 보면, 에스더 왕후는 왕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자 결심을 한다. 이때 그녀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put on her royal robes)” 나타난다. 이는 자신의 왕후로서의 신분과 연회의 공식적인 성격을 반영한 에스더 왕후의 의도적인 복장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어 왕이 황금홀을 에스더 왕후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다가가 왕홀의 끝자락을 만지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지금 베풀어지는 연회가 공식적인 행사임을 거듭 시사한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마디의 말도 오가고 있지 않지만 많은 내용이 전달되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 비언어적 의사소통 양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밖에도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무화과나무의 잎으로 만든 치마 (7절)와 가죽옷 (21절)이 내포하는 의미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 또한 창세기 37장 3-4 에 나오는 요셉의 채색 옷은 여러 가지 고운 빛깔이 나는 화려한 옷으로 흔히 장신구가 달려있기도 하였다. 이 채색 옷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다른 자식들

---

princes offered their offering before the altar.' (KJV: 민수기 7:10)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은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아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무엘상 24:4-11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자르는 행동은 사울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음을 나타내며 (9-10절), 동시에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 보이는 호소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11절). 누가복음 15:11-32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 (22절)고 명하는 대목이 나온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 가락지, 그리고 신발은 단순한 의복 및 장신구의 기능을 넘어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깊고 의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나실인 Samson이 지닌 긴 머리카락의 의미도 흥미할 가치가 있다 (사사기 13장-16장).

#### 4.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정보가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외에 비언어적 의사소통 양식을 통하여 전달되는 경우를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온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언어 자체는 물론이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말이 아닌 비언어적 의사소통 (non-verbal communication) 양식도 알아야 함을 성경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전통적으로 성경해석에서 강조되었던 단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 어휘의미론 (Lexical Semantics)에 성경해석의 주 관심이 모아졌다면 본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을 추구한다면 거기에 부수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제 양상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성경해석상의 보다 정확하고 온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양식을 살펴보고 이들이 언어학적으로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성경에서 실례를 찾아 검토함으로써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돕고자 하였다.

#### 참고문헌

- 김정우, 차영규 옮김. 『성경 어휘와 그 의미』. Biblical Words and Thei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exical Semantics, by Moises Silva. Zondervan Publishing House. 성광문화사. 1990.
- 박동열. “예수 탄생이야기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 (마 1장 18절~2장 18절)” . 『신앙과 학 문』, 제 10권 제2호 (2005): 119-144.
- 박명석. 『세계화와 동서양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서울: 태학사, 2000).
- 서인석. 『성서와 언어과학』.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4)
- 서인석. “어떻게 복음서들을 읽을 것인가?” . 234-260.



- 서장국. 2009.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커뮤니케이션: 창세기를 통해본 언어학적 조명. *기독교 대학 & 학문* 2. (서울: 백석출판사). 31-52.
- 여유나.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의 비언어적 행위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 학교, 1993.
- 이종인 옮김.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성서』. The Complete Bible Handbook, by John Bowker. Dorling Kindersely Limited, London. 시공사. 2003.
- 헨리 모리스 (1994). 『진화론과 현대기독교』 (서철원 역). 생명의 말씀사.
- Choe, Yunhee. "Intercultural Conflict Patterns and Intercultural Training Implications for Koreans". *International Area Review* 5.1,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2): 111-128.
- Cotterell, Peter and Max Turner. *Linguistics and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89.
- Davis, F. "How to Read Body Language". *New College English*. Seoul: The English Literary Society of Korea. (1973): 65-72.
- Hall, E. *The Silent Language*. Garden City, NY: Doubleday, 1959.
- Hall, E. "Monochronic and Polychronic Time". *The Dance of Life: The Other Dimension of Time*. New York: Doubleday and Company. (1983): 41-54.
- Ishii, S. "Thought Patterns as Modes of Rhetoric: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ommunication* 11, (1982).
- Kaplan, R. "Cultural Thought Pattern in Intercultural Education". *Language Learning* 16, (1966): 1-20.
- Lyons, John. *Semantics I*. Cambridge. CUP. 1977.
- Morain, G. "Kinesics and Cross-Cultural Understanding". *Language in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no.7,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Washington, D.C.. (1978): 1-23.
- Park, M.-S. *Communication Styles in Two Different Cultures: Korean and American*. Seoul, Korea: Hanshin, 1982.
- Porter, R. and L. Samovar. "An Introduction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Samovar, L. and Porter R. (ed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 Belmont, CA: Wadsworth. (1994): 4-26.
- Stewart, E. *American Cultural Pattern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Dimensions of International Education, no.3, Pittsburgh, Pennsylvani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2.
- Taylor, Charles V. 1981. Linguistics, genesis and Evolution-Part I. *Creation*

4.1 (1981): 18-20

Yum, J. O. 1994. The Impact of Confucianis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Patterns in East Asia. In Samovar, L. and Porter R. (ed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 Belmont, CA: Wadsworth. (1994): 75-86.

<http://www.answersingenesis.org/docs/3569.asp>

<http://www.wikipedia.com>